

'도로 위 흥기' 10대 무면허 질주...부모 차 몬 고교생 2명 숨져

2018.05.13



【앵커멘트】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전북에서 부모님 차를 몰고 도로를 질주하던 10대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기자】

비가 내린 전북 김제의 한 도로.

흰색 승용차가 미끄러지듯 중앙선을 넘더니 마주 오던 1톤 트럭 두 대와 잇따라 부딪힙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졌는데, 모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 인터뷰 : 사고 목격자

- "쿵 소리가 나서 뛰어나와 보니까 승용차는 처참하게 찢그러져 있고, 트럭에는 2명이 타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면허도 없이 부모님 차를 몰래 가지고 나와 운전하다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사망자가 발생한 승용차는 보시는 것처럼 차 전체가 파손됐습니다. 사고 당시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교통사고는 매년 1천 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면허도 모자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가 하면,

▶ 인터뷰 : 이춘호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

- "단순한 호기심과 미숙한 운전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교통사고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10대 무면허 교통사고로 135명이 숨졌고, 7천6백여 명이 다쳤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